

2008 새해설계 ①

포천시축구협회 회장 강명호

‘시민축구단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전용축구장 建設 포천시가 앞장서야



본지는 포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들의 새해설계를 각 단체장들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순서는 무순이며 인터뷰 섭외가 가능한 단체부터 인터뷰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포천시 축구협회는 지난해 최고의 성과로 53회째 개최된 경기 도민체육대회에서 남자부 축구 첫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것을 꼽았다. 이처럼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화합과 통합의 결실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3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포천축구협회 강명호(42·사진) 회장은 “2006년8월 회장으로 취임하여 2년여동안 회원들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포천시축구협회 1년 예산은 축구협회 1억5천만원, 생활체육 4천여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경기도교육감배, 경기도협회장배와 같은 큰 대회에는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체육회 38개팀, 직장부 12개팀 등 50여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8년에는 70~80개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며 부족한 예산은 회장이 2천여만원, 부회장 200여만원 등 후원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다. 포천시에서 축구가 활성화된 이유에 대해 강 회장은 “시골이면서 지역이 강하고 토호성이 강하며 산이 많아인지 축구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며 “그동안 지역토박이와 외지에서 이주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졌던 사이도 축구를 통해 화합의 장이 마련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시축구협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강 회장은 “큰 대회를 포천에 유치함으로써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곳에서 합숙하지 않는 대회는 가급적 유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 축구인의 열원인 축구공원 유체에 적극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포천에서 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며 포천에서 이같은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서울, 경기에서 많은 팀들이 몰려오게 된다”고 밝혔다.

1월18일 창단한 시민축구단에 대해 강 회장은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각 구단의 도움을 받아 월1만원씩 1천구좌를 약속 받아 1년예산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출발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

민축구단이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서 태어나 선산초, 포천중, 인천고를 졸업한 강 회장은 2008년 새해에는 시민축구단이 뿌리 내렸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포천신문에 거는 기대는 “포천신문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지역을 선도하는 역할, 사회를 밝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포천시축구협회나 스포츠 관련 뉴스도 활발하게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이보용 본지자문위원장

하말라야 근처에 위대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 밑에 젊고 똑똑한 제자가 생겼습니다. 젊은 제자는 간절하게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스승은 “그래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 1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제자를 데리고 숲 속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내 뒤를 따르라”하고는 정신 없이 숲 속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스승은 큰 아름드리 나무를 끌어안고 달려

달라고 고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나무에 매달린 스승을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나무에 매달린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무가 스승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도리어 나무를 잡고 놓지 않고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나무가 스승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이 나무를 잡고 놓지 않는 것이니 나무를 잡은 손을 놓으라고 하니 스승은 “마지막 해 나무를 놓으면서 ‘제자야 바로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일러 주셨습니까

이 때 제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물질과 명예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의 011-342-5834)

새해 맞이 어려운 이웃 돕기 운동 활발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 성금 물품 전달식 가져



본지가 상시운영중인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된 성금과 물품을 1월16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달식에는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 회 고문, 박혜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 권귀자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권경자 이동면지구장과 구광식 조사위원, 이하호 경기도모니터요원 등이 참여했다.

이어서 이하호 경기도모니터요원의 추천을 받아 관인면 사정리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 김경순씨(75), 20년째 홀로 살고 계시는 관인면 사정리 정인숙(92)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장영철(70)할아버지께도 각각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하고 추위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격려했다. 이동면으로 이동해 권귀자 주부명예기자단 이사의 추천을 받아 독거노인 박옥려(80), 장애인 이의선(50), 독거노인 김옥년(81), 김말순(75), 김주옥(61), 양순중(76), 김순옥(83), 박성화(78)씨에게 전달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 전달방법을 연곡중앙교회에 김옥년, 김말순 할머니 분을 맡기고, 연곡소망교회에 박옥려, 이의선, 김주옥, 양순중, 김순옥, 박성화 씨 등께 전달해달라며 각각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이동면에서는 의제21 천명숙씨의 추천으로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누

워있어 딸의 등록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형편이 곤란한 이동식씨(51)와 대한적십자사 일동봉사회 이강애 회장이 추천한 유덕기(61), 최규례(72), 이동순(80), 하은경(46), 강정숙(61)씨 등에게도 각각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또 주사랑교회의 추천으로 화현면 손운술(76)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주사랑교회에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종현 조사위원 회 고문은 “십시일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귀하게 맡겨주신 성금과 물품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며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말했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포천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과 시민들의 귀한 뜻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큰 것은 아니지만 정성을 전달하게 되어 반갑다”며 “서로 돕고 사는 훈훈한 사회건설을 위해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경로당에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김경순 할머니와 김옥련 할머니께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이날 김부순 할머니가 인계 전달했다.)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살고 있는 김부순 할머니께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이날 김부순 할머니가 인계 전달했다.)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 김경순 할머니께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신음동에 살고 계시는 고창식씨께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3켤레, 전기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신음동에 살고 계시는 이춘옥 할머니께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에서 20년째 홀로 살고 계시는 정인숙 할머니께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 정인숙 할머니께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이동면 연곡중앙교회에 김옥년, 김말순 할머니께 전달할 성금 20만원과 쌀 20kg 4포대, 김표양말 10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일동면에 살고 계시는 이동식, 유덕기, 최규례, 이동순, 하은경, 강정숙씨에게 각각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이동면 연곡소망교회에 박옥려, 이의선, 김주옥, 양순중, 김순옥, 박성화씨께 전달할 성금 60만원과 쌀 20kg 12포대, 김표양말 30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화현면에 살고 계시는 손운술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주사랑교회에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김표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전기안전관리 등불!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 안병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점검대상 : 학교, 관공서, 빌딩,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



분전반내 부하점검



변압기 부하점검

고객의 전기시설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업